

“음원 사재기 의혹 자발적 수사요청…결백 증명되길”

바이브 측 “이미 불명예스러운 낙인 찍혀”



그룹 바이브(류재현 윤민수) 측이 블락비 박경이 주장한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거듭 사실 무근임을 밝히며 추가 입장문을 내놨다.

바이브 소속사 메이저나인은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달 24일 한 아티스트의 발언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그 발언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었기에 처음 해당 사안을 접했을 때에는 그저 실수라 생각했다. 소속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고 사과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대신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시물은 삭제했으나 사과는 힘들 것 같다”는 대답을 받았고, 며칠이 흐르자 그 허위 사실

을 저희에게 불명예스러운 낙인으로 프레임으로 돌아왔다. 논란은 무분별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차혹스러운 고리표가 따라붙기 시작했고,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았다”고 했다.

소속사는 “지금 이 속도대로 진행되었다가는 몇 개월 후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나더라도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비슷한 몇몇의 사례들처럼 이미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힌 허위 사실로 만들어진 프레임이 씌워진 가수가 되어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랜 시간 그저 음악만 해왔을 뿐 그 어떤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런 일들을 불거지게 한 음원 사재기라는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누군가를 찾아내기 위해, 현재 저희는 조사가 가능하다 생각되는 모든 기관

를 요청하였고, 협조를 촉구했다. 적법하며 공정한 절차들을 거쳐 저희의 결백이 하루라도 빨리 증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사는 “이것이 좀 더 빨리 가능할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도 유통사에서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문제는 제기됐던 팀들만이라도 자료를 검토할 수 있기를 저희 역시 간절히 바라는 바”라며 “더불어 이 시안들이 반드시 명명 백색히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대외적인 목소리를 높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 문제를 거론한 사람들 역시 자신이 베은 말에 엄중한 무게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더 이상 카더라가 아닌 분명하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누가 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바이브는 가요계 불신을 조장하는 음원 사재기는 뿐만 아니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바이브는 허위 사실로 비롯된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요계 선배로서 저희 또한 바이브의 음악 인생 전부를 걸고 명백하게 이 부분을 증명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소속사 측은 음원 사재기 논란에 대해 관련 기관에 조사 협조 및 데이터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양식도 함께 첨부했다.

뉴스1

김준현X장도연, 재난 버라이어티 ‘생존자들’ MC 발탁…10일 첫방



김준현과 장도연이 대한민국 최초 리얼 재난 버라이어티 ‘생존자들’ 진행을 맡는다.

3일 KBS 2TV ‘생존자들’ 측에 따르면 김준현과 장도연은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MC를 맡게 됐다.

1년 간 ‘위기탈출 넘버원’을 진행하며 물불 안 가리고 재난 지식을 갖춘 준 재난 전문가 김준현과 물 공포증, 고소 공포증을 겪으며 생긴 섬세하고 날카로운 재난 탐지력에 특유의 유머 감각까지 디채로운 매력을 갖춘 장도연, 조합만으로도 친全国人民 케미를 예고하

는 두 사람이 MC로 출연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김준현은 “평소 안전 관리증이 라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존지식을 알려주는 것 이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임할 예정이다”라고 출연 계기를 밝히며 KBS의 생존 터줏대감 면모를 보였다. 정보와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생존자들’은 오는 10일 오후 8시55분 방송된다.

곽정은, 2주 만난 남자와 결혼→1년만에 이혼한 이유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서 진솔한 이야기 전해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방송인 곽정은이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만난지 2주 된 남자와 결혼하고 1년만에 이혼하게 된 과정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3일 오후 8시55분 방송되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13년간의 잡지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작가·방송인·강연자로 활약하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힘이 돋주고 싶다는 그는 여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심리 실통을 운영하며 대중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곽정은은 이혼하고 혼자 산지도 별씨 10년이 됐다. 기자 시절,

잡지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그에게 서른이 되자 알 수 없는 위기감이 찾아왔다. 주변 친구들의 결혼 소식에 자신도 남들처럼 가정을 꾸려야 할 것 같은 의무감에 사로잡혔고, 결국 만난지 2주 된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며 인생 최고의 외로움을 느꼈고, 결혼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혼을 결정했다. 이혼은 그에게 혼자 사는 삶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게 했다.

곽정은은 혼자 공원을 가고, 좋아하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더 큰 행복함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 곽정은에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혼자 지내느냐고 걱정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통해 혼자거나 둘이거나, 행복을 느끼고 충만함이 있는 삶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알리고 싶어졌다고 한다. 인생의 어떤 실패든 불행하지만은 않다면, 그로부터 배우고 자신이 스스로 행복함을 느끼는 삶을 위해 오늘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곽정은의 당당한 싱글 라이프를 공개했다.

라이언 레이놀즈, 엑소 새 멤버 변신? “진지하다…정말 흥분돼”

자신 SNS에 엑소 멤버들에 둘러싸여 찍은 사진 공개



릴리우드 스타 라이언 레이놀즈가 그룹 엑소 멤버들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라이언 레이놀즈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엑소 멤버가 됐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원이 내게 천기 총격을 기한 것도 전부 미리 짠 암무였다. 나와 그들은 그것을 지하 스튜디오에서부터 내가 상상해온대로 연습했다”라는 농담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라이언 레이놀즈는 엑

소 멤버들에 둘러싸여 사진을 찍었다. 손가락을 들어올려 각자 포즈를 취한 엑소 멤버들과 그들의 옆에서 웃고 있는 라이언 레이놀즈의 모습이 유쾌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이어 올린 사진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영화 ‘언더그라운드’ 그린 카페 현장에서 찍은 모습이 담겼다. 라이언 레이놀즈를 비롯해 멜라니 로랑, 아드리아 아르호나, 마이클 베이 감독, 이안 브라이스 프로듀서 등이 엑소 멤버들과 무대 위에서 포즈를 취했다.

라이언 레이놀즈는 트위터에도 엑소 멤버들과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 속에서는 자신의 머리 위에 아이돌 멤버처럼 염색한 머리를 그려넣어 웃음을 줬다.

그는 트위터에서 “엑소의 새 멤버로 정말 흥분된다”고 농담을 적어 웃음을 자아냈다.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포드V페라리
2관	겨울왕국2
3관	감쪽같은 그녀
4관	겨울왕국2
5관	나이브스 아웃
6관	겨울왕국2
7관	블랙머니
8관	겨울왕국2, 너의 여자친구, 아직 사랑하고 있습니까?
9관	나를 찾아줘, 감쪽같은 그녀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나를 찾아줘, 블랙머니, 감쪽같은 그녀
2관	겨울왕국2, 러브 앤, 블랙머니
3관	포드V페라리
4관	겨울왕국2,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5관	겨울왕국2, 나를 찾아줘, 포드V페라리
6관	감쪽같은 그녀
7관	겨울왕국2, 포드V페라리, 나이브스 아웃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